

# 아크람 칸 작품 「데쉬(Desh)」에 나타난 노마디즘(Nomadism) 특성 연구<sup>+</sup>

이재선\*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의 노마디즘(Nomadism) 사유를 바탕으로 아크람 칸(Akram Khan)의 작품 「데쉬(Desh)」에서 나타나는 방랑적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안무가의 모험적 삶, 체험을 통한 삶은 타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감정 융합의 순환이 일어나 공동체를 구성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모든 요소와 장르의 균형 있게 혼재하여 순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를 생성하며 그 가치를 인정했을 때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마지막으로 안무자들은 방랑적 체험을 통하여 지나치는 순간에 일어나는 감각, 감정,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현재적 시간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컨템포러리 댄스, 노마디즘, 미셸 마페졸리, 아크람 칸, 데쉬

## I. 서론

무용의 특성에 있어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는 점은, 무용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라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생성하며 다양화를 만들어 나간다. 즉 문화측면에서 봤을 때의 무용은 타자들과의 접촉, 이해 그리고 교류를 통한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사회적 예술인 것이다(손은옥, 2000, p. 11). 무용은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타자들과의 공감과 공유를 통해 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은 “문화 혼종(Culture Hybridization)과 예술 상호주의”로 인해 점차 탈중심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말복, 2011, p. 4). 탈중심화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탈경계와 탈정체성의 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노마디즘(Nomadism)’의 특성이 나타난다(고충환, 2001, p. 141). 즉 노마디즘 측면에서 봤을 때의 무용은, 창조적인 춤의 방식을 찾아 이동하는 동시에 전통과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의 관계망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마디즘을 이해하고 무용작품에서 이러한 노마디즘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은, 점차 다양화되고 탈중심화되어가는 춤의 모습을 보다 잘 이해하고, 관련 작품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노마디즘의 어원적 의미는 ‘유목’ 즉, 고정적인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은 질 들뢰즈(Gille Deleuze, 1925-1995)·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1943-),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 1944-) 같은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 되었으며(김현, 2008, p. 22), 철학, 사회학, 예술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개념에서의 ‘방랑’은 끊임없는 접촉과 만남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Maffesoli, 2007a, p. 85),

<sup>+</sup> 본 연구는 2019학년도 이재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선임 연구원, egeg61024@naver.com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성과 감정의 융합을 강조한다.

노마디즘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 고충환(2001)은 현대 사회에서 노마디즘은 동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주요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정락(2014)은 노마디즘을 현대 글로벌 사회를 설명해주는 주요 실천 개념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김성기(2001)는 노마디즘을 현대사회의 변동에 있어 새로운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노마디즘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주요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노마디즘적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크람 칸(Akram Khan)은 방글라데시인으로 영국 런던 근교의 Wimbleton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크람 칸은 그는 김정은(2014)과의 인터뷰를 통해 “런던에서는 외국인처럼 그리고 영국에서는 방글라데시인으로,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왔을 때는 영국인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인과 방글라데시인 사이에서 자신의 혼종적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살아온 것이다(김정은, 2014). 여기서 그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두 문화의 경계에서 ‘방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크람 칸은 이러한 자신의 ‘방랑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작품을 구성하고 안무하면서 새로운 작품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특히 ‘카탁’이라는 인도 전통춤 테크닉을 도구로 삼아 혼종적인 자신만의 새로운 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아크람 칸은 ‘삶을 통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감정과 의식의 생성을 표현해왔는데, 그것은 아크람 칸의 의식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유의 생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에 그는 ‘다양한 만남으로 불완전한 정체성의 자아를 다채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문학수, 2014).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원적 세계에 자아를 노출하는 것이 타자와의 접촉과 관계를 만들고, 자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새롭게 창조한다는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중 ‘방랑’의 개념과 연관된다. 특히 아크람 칸의 작품 「데쉬(Desh)」(2011)는 자신이 이민자로서 느껴온 감정과 고민이 깊게 드러난 작품이다(김장운, 2014). 따라서 아크람 칸의 작품 「데쉬(Desh)」(2011)를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노마디즘을 개념화한 마페졸리의 이론에 접목하여 분석해본다면, 안무가의 방랑의 과정과 방랑적 정체성이 노마디즘적 특성으로 무용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중 ‘방랑’을 통한 접촉의 개념을 중심으로, 무용 작품 「데쉬(Desh)」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전개에 있어 먼저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서평과 연구 논문 및 단행본과 『Du Nomadisme』(2007), 『자연회귀의 사회학』(2007), 『디오니소스의 그림자』(2013), 『현대를 생각한다』(1997), 『영원한 순간』(2010) 국문 번역본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크람 칸의 작품 「데쉬(Desh)」(2011)를 노마디즘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마페졸리의 노마디즘적 관점에서 무용작품의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무용예술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아울러 노마디즘을 바탕으로 주목받는 안무가의 작품해석을 통해 무용작품의 노마디즘적 의미들이 무용예술 창작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무용예술 창작 현장에서 노마디즘적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의 노마디즘 개념

마페졸리(Michel Maffesoli)의 사유에서 노마디즘(Nomadism)은 탈중심화된 구조로 설명하며 이를 부족주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마페졸리가 부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부족주의 안에서 형성되는 상대주의, 모

순적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성된 가치관은 새로운 감정적 융합을 통해 타자와의 공감이라는 확장된 관계를 일으킨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자아는 또 다른 새로운 자아로 이동되며, 새로운 자아로의 이동은 자아의 형성과 자아의 발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궤적이 된다. 즉, 마페졸리에게 노마디즘은 과거 억압되었던 가치들을 복원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맞는 자유로운 방랑의 개인, 개방된 개인, 즉 자적 초월성에 열려 있는 개인으로 이끄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마페졸리가 노마디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사회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방랑을 통한 접속', '부족주의를 통한 융합', '현재를 통한 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방랑을 통한 접속

마페졸리가 말하는 '방랑'은 다원적 세계에 자아를 노출하고 그 세계에서 타자와의 만남과 접속을 통해 자아를 다양하게 자극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 삶의 활력소이며 생명력 그 자체가 된다. 이러한 방랑에서 중요한 것은 방랑 자체가 목표이지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방랑 그 자체가 지표가 된다. 마페졸리에 따르면 목적 없는 이동을 말하는 방랑은 인간 내부의 근원적인 욕구이자 본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근대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매몰되어 왔다. 이는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가 가져온 가치관은 개인의 정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에 기인한다. 사회의 부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 하므로 근대의 제도는 개인이 사회와 환경의 경계와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페졸리에게 안정과 정착에 묶인 개인은 고정되고 획일화되며, 결국 부정적인 것으로 사유된다.

### 2. 부족주의를 통한 융합

마페졸리는 일상성을 규정짓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의 드러남과 복합성(Complex)이라 말한다(Maffesoli, 1985, pp. 3-41). 그리고 이 복합성의 구체적 현상을 복합문화(Polyculturalisme), 혼성(Métissage), 부족주의(Tribalisme) 등으로 제시한다(김동윤, 2007, p. 65). 고대 혹은 원시적 영역에서 통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부족'의 개념이 마페졸리에게 동시대적 차원에서 현재를 특징짓는 단위로 의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페졸리는 가장 현재적인 '부족'에 대한 개념을 '신부족주의'라고 명명하며 설명한다. '신부족주의'는 노마드적 속성을 지니며, 순간적인 모임과 분산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부족에게서는 기초 연대, 체험된 경험, 구체성의 감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근대의 가치관이 결집되었던 기초 단위로서의 사회가 전체성의 구조 안에 개인의 감성을 매몰시켰다. 그러나 마페졸리가 주장하는 '신부족주의' 혹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부족'은 이와는 다르게 보다 개인적이며 감성적인 특질들을 단체의 구조 안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이성에 의해 편집되고 규제되었던 근대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이성을 벗어난, 이성을 넘어선 또 다른 비이성적 영역의 개입을 허용하고 보장하며 더 많은 우위를 둔다. 즉, 이성적 토대로 포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다원적 가치관이 부족주의적 개념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들, 타인에 대한 배려, 존재의 관대함이 부족 개념에 통합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적 부족은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가치들이 융합하여 형성되는 집단을 의미하게 된다. 마페졸리는 이러한 부족의 의미를 통해 상대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3. 현재를 통한 순간

노마디즘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지며 다양한 정체성화를 통해 수용과 저항 간에 지속적인 순환으로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물의 안정성과 관계의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 등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감정을 원하며, 동일한 구조적 행위를 구성한다. 마페졸리는 “정체적 인간은 노마드의 존재를 바라는 것이다”(Maffesoli, 2007a, p. 95)고 주장한다. 노마드들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의 순환을 이룬다. 이것은 창조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문화적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원형은,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낸다.

현재의 모든 순간은 가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쁨의 탐구’는 정해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순간들을 찾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 영혼과 형태, 쾌락주의와 같은 지적 요구 사이의 모순적 결합은 이 점에서 포스트모던하다”(Maffesoli, 2007a, p. 152). 노마디즘이 지배적인 시대는 영원한 순간성에 의한 쾌락과 욕망이 중요하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과 지금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삶의 기쁨과 방랑은 문화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며,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문명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유희적 방랑은 사회가 지속되게 하는 안정적 제도를 만들고 미래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던 폐쇄성은, 모든 부분에서 무력함의 징후가 나타났으나, 다시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계를 넘어서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것이 가치를 부여 받고 있다(Maffesoli, 2007a, p. 31). 이러한 내용은 하나의 암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현존하는 것에 대해 우위를 두며 한 시대의 일반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억눌려 있던 가치들이 순환적 회귀를 통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Maffesoli, 2007a, p. 33). 이러한 ‘순환성’은 일상이란 의미로, ‘순간의 윤리(Ethique)’를 뜻한다. 마페졸리는 순환성에 있어서, 끝없는 삶의 순환과 그 속에서 반복적인 ‘매일의 일상’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Maffesoli, 2013, p. 63; 박성준, 2016, p. 131).

노마디즘은 다양한 형태로 순환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체된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변용을 통해 모험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고착된 것들을 상대화한다. 이런 현상은 나아가 유동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하고 가내수공업이 복원되며 자연과 종교의 회귀를 불러일으키고 존재 안의 질적 탐구를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회귀는 원초적 모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제도화적인 것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대화는 회귀의 모습으로 규칙적인 회고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음을 각인시키는데, 여기서의 회귀는 원형적 형태로의 회귀를 말한다. 때때로 이러한 회귀는 단순한 향수 또는 기념제 등이 뜻하는 바를 넘어서 절정의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Maffesoli, 2007a, p. 49).

### III. 「데쉬(Desh)」에 나타난 방랑적 특성

아크람 칸(Akram Khan)의 작품 「데쉬(Desh)」에서의 ‘Desh’는 벵갈어로 ‘고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는 ‘정체성의 문제’(문학수, 2014)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전쟁 이야기’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크람 칸은 「데쉬(Desh)」에서 사회적 문제를 통해 자유로운 방랑, 개방화, 초월성으로의 열림, 개인과 자연의 만남 등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최원기, 2008, p. 211). 아크람 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고국으로 여행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얻은 감정과 경험 그리고 회상 등을 담아내고 있다. 아크람 칸은 방랑을 통해 낯선 것을 탐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모험적인 삶과 경험으로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 경험은 작품을 구조화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에 「데쉬(Desh)」는 흔재된 각 주제 안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과 ‘모험적 방랑’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방랑의 길을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낯선 어떤 순간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이질적인 요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크람 칸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나 낯선 장르에 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풀어나고 있다. 김경희(2004)의 인터뷰에서 아크람 칸은 자신의 철학을 이 같이 설명하였다. “현대무용은 불완전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런 관점에서 무용은 인간 존재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서 배워나가는 ‘대화(Dialogue)와 거기서 영감 받은 진화야말로 스스로의 추동력이 된다. 그래서 나의 무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나의 작업이 정의되는 순간은 무용을 그만두는 순간이다”(김경희, 2004). 이처럼 아크람 칸은 변화와 낯선 것으로의 도전 속에서 생성되는 감정과 융합이 자신에게 창조적 영감을 얻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안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 아크람 칸은 자신이 지향하는 작품 스타일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의내릴 수 없는 변화와 내면의 잠재성이 곧 ‘아크람 칸’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안무 작업에서 늘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탐구로 규칙과 정형성을 깨뜨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방향을 통해 낯선 것으로부터 얻은 감각들과 이질적인 것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작품 「데쉬(Desh)」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모험적 방향', '타자를 통한 감정융합', '순간의 순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모험적 방향

마페졸리는 현대사회 속 삶의 특징을 ‘방랑’으로 바라본다. 방랑의 욕구는 타인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접속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방랑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마페졸리는 우리의 ‘존재’라는 어원(Existence) 자체가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타인에게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Maffesoli, 2007b, p. 236). 즉 오늘날의 사회에서 나타난 방랑으로의 회귀 지표들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상상력 구조 속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대성을 특징화하자면, 서열화하고 체계화하는 순간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조직과 사회의 기계적 구조에서 상상력과 욕망, 기쁨 등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모든 경제적인 것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Maffesoli, 2007a, pp. 26-28). 이는 변증법적 사고로 볼 때 재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페졸리는 현대의 이러한 순환을 통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직업, 감정, 문화 등의 영역에 존재했던 경계와 속박을 부수고 새로운 변화와 집단 감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아크람 칸은 이러한 방랑의 정체성을 가진 자아로서, 특히 작품 속에서 다양한 것들의 접속을 시도하며 움직임의 변화로 자아를 찾는 ‘방랑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는 컨템포러리 댄스와 카타, 릴리즈 테크닉 등의 다양한 움직임과 모험적 실험 정신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방랑자의 모습을 지닌다. 방랑의 욕구는 절대적 가치일 수도 있고 자유분방한 가치일 수도 있으며 비밀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는 하나의 구조적 축에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것의 반복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되며 표현된다. 아크람 칸은 컨템포러리 댄스의 움직임과 전통춤의 혼재를 통하여 과거 무용 동작이라고 범주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변모시킨다. 즉 아크람 칸의 이러한 모습은, 마페졸리가 말하는 ‘방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랑을 통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낯선 것들에 관하여 탐구한다. 다시 말해, 지금 순간에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것, 생성되는 것, 다양한 변화와 놀이의 유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Maffesoli, 2007a, p. 153). 방랑의 길에서 얻는 크고 작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중요한 무언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아크람 칸은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방랑자의 모습과 닮아있다.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의 유희가 일어나듯이 전통적인 움직임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움직임이 혼재한다. 「데쉬(Desh)」가 성공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의 색채에 현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크람 칸이 카타으로 혼련된 무용수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새로운 것을 작품에 입히는 것이 아니며, 방랑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마주했던 방향의 길속에서 쌓인 잔해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다. 아크람 칸은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움직임은 단순히 카타와 현대무용의 결합이 아니며, 이질적인 형태로 혼재하는 것

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경희, 2004). 그의 움직임은 조건 없는 혼합, 결합이 아니라, 그 주체를 인정하고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 쌓인 슬픔과 기쁨 그리고 비극 등 여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움직임에는 카타의 움직임 중 회전, 팔과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카타의 기원은 고대 인도의 신비한 신화를 해석하는 ‘방랑시인’으로부터 유래하였다(LG Artcenter, 2018). 카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다재다능한 이야기꾼을 의미하며, 무용수이자 음악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카타는 전통을 간직한 채 국경을 넘나들며 인도를 넘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동시대에 새로운 감각들과 결합하며 발전하였다(김장운, 2014). 이러한 방랑적 의미를 지닌 카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아크람 칸의 작품은 그 자체에 방랑적 특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움직임에는 현대무용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질적인 움직임의 언어가 다소 투박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움직임의 본질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의 정체성과 초월성으로도 볼 수 있다. 동작에 있어서는 전형적 카타 동작들과 현대무용에서 나타나는 동작들과 그리고 일상적 움직임이 그의 춤을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작은 카타의 기본동작 중, 발을 빠르게 구르는 동작과 제자리에서 빠르게 돌기거나 팔의 웨이브를 만드는 움직임 등의 전형적인 카타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추는 움직임과 구르기, 달리기, 떨어지기 등 하나의 기본적인 현대무용 동작들과, 가만히 바라보기거나 소리 지르기 등 일상적인 움직임이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연결된 동작들은 모두 절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순수한 춤동작들을 이야기 구조 안에 첨가하였다. 움직임에서의 에너지와 몸의 리듬이 잘 나타나도록 배치하였으며, 관객이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모호함이 적고, 움직임 또한 무의미한 동작을 찾아보기 어렵다(이지현, 2014). 마치 방랑에서 만나는 다양한 성격들이 혼재되고 융합되는 것처럼, 아크람 칸의 춤 동작 안에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이 섞여 있다. 서양 무용을 섭렵한 그의 전통춤은 “자유로움과 해방에 중점을 둔 테크닉을 통해 자신만의 무용 스타일을 확립했다”고 평가된다(김보라, 2011). 즉, 그의 춤은 방랑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춤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전통과 현대, 그리고 과거와 순간이라는 시간적 혼용을 자신의 움직임 안에 펼쳐 놓고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아크람 칸은 이렇게 전통춤과 현대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전통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게 창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창조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사이의 단순한 상호보완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크람 칸의 모험적 방랑이 모든 것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아크람 칸은 방랑을 통해 존재론적 모험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합리적이고 지적인 비전들을 상대화하고 감성과 감정을 확보한다. 마페졸리는 이러한 역동적 모험이 바로 인간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Maffesoli, 2007a, p. 144). 모험은 존재의 내부에 우연히 들어온 것들이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창조가 시작된다. 마페졸리에 따르면 인간은 모험적인 삶을 통해서만 기능적 구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험은 우리의 존재에서 매우 낮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Maffesoli, 2007a, p. 144). 이처럼 아크람 칸은 방랑자, 모험가, 유목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모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타자를 통한 감정융합

포스트모던 시대의 방랑은 현시대와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소생시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하며 모든 사회

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 즉, 창조적 상상력이나 환영, 비물질적이거나 다른 상상적 방식 등을 통해 인간에게 다원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Maffesoli, 2007a, p. 140). 작품 「데쉬(Desh)」에서는 과거의 사건과 추억을 소생시켜 아크람 칸과 타자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창조적이고도 상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자신이 추억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직접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조국에 다가가는 긴 여정을 그려낸다. 이렇게 아크람 칸은 여행을 통해서 모험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험한다. 이러한 모험적인 삶을 통해 기능적 구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스스로도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크람 칸의 모험적 방랑은 다원성을 통해 서로 얽혀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아크람 칸은 사회, 가족, 문화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건을 자신과 타자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방랑하는 자아는 타자와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체험할 수 없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한다. 즉 인간 존재가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조윤경, 2006, p. 21).

마페졸리는 인생의 궤도는 변화무쌍한 것이며,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지향하는 사회적 태도를 지닌다고 하였다(Maffesoli, 2007a, p. 134). 아크람 칸은 「데쉬(Desh)」에서 자신의 내면적 사유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타자들의 내면과 접촉을 시도한다. 즉 작품 안의 모든 사물은 현실에서 존재론적 방랑을 통한 역동성을 지니는 동시에 다원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다른 것들에 접속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연 철학자 쉘링(F. Schelling)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현상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강조한다(Maffesoli, 2007a, p. 134). 아크람 칸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캐릭터화 하여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장면이나 영상 속의 자연 또는 동물들과의 접속장면을 제시한다. 이것은 자신이 찾으려고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 연대성은 상호 연계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체험의 경험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그 속의 함축된 의미들을 강조시킨다. 아크람 칸은 자신의 자아에 관한 사적인 탐구를 계기로 기억 속의 잠재된 주체를 끄집어내어, 8개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Omnibus)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미술작품에서는 뒤상(Marcel Duchamp)의 작업을 환기하는 측면이 있다. 뒤상의 「여행 가방 속 상자」는 원본과 복제본이 유동적 상태로 끊임없이 교차된 작품이다(배수연, 2014, p. 51). 「여행 가방 속 상자」의 복제본들은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차이를 지니면서 각각 다르게 구현된다. 하지만 아크람 칸의 작품에서 무대 위 자아는 원본과 동화될 수 없는 복제본인 동시에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자아로 구현된다. 아크람 칸은 모호한 지점에서 자신의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넘나들며 유동하는 역할을 작동시킨다. 즉, 그것은 과거 속 자신과 현대 자신 사이의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친 아버지, 반항적인 10대 시절의 자신의 모습, 가상의 어린 조카에게 방글라데시 전설을 들려주는 삼촌의 모습, 방글라데시 혁명전쟁에 참여하는 운동권 학생의 모습 등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다양한 자신과 그 주변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며 가상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민머리에 눈, 코, 입을 그려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1인 2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그는 섬세하면서 투박한 모습의 어떤 것을 그려낸다. 자신의 머리에 또 다른 인간상(눈, 코, 입)의 자국을 남김으로써 아크람 칸은 또 다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아크람 칸 자신은 스스로에게 남긴 하나의 인쇄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모든 미장센을 뺀 무대 위에 무용수가 온전히 자신의 움직임으로 관객과 소통하려 하기도 한다. 아크람 칸은 그렇게 자기를 잃음으로써, 또 다른 공동체에 접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연계 하며 그 안에 자기 존재의 다양한 가능성이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이윤희, 2001, p. 52). 그렇게 아크람 칸은 탈근대의 '융합의 원리' 즉, 관계 속 인간(Man of Relation)인 나와 또 다른 나, 나의 주변 사람들 등

대타자와 융합한다. 이는 마페졸리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아크람 칸이 무대와 작품을 통해 ‘개별화의 원리’를 넘어 타자로부터 고립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것과 융합하여 자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크람 칸은 인터뷰를 통해 “정체성의 혼돈은 우리 세대의 주요한 특징이다”(김경희, 2004)라고 말하며 현대의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크람 칸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하지 않은 혼합체라고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안무 지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불완전성이 인간 본성과 가장 닿아있으며,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김경희, 2004). 이렇게 자신의 문화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관념은 무조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거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복수적 개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아크람 칸은 이런 방식의 존재론적 탐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모험적 실천으로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아크람 칸은 자신의 실존을 거부하고 탈피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신을 뛰어넘고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자신을 탐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작품의 새로운 주제와 소재를 얻어내었다. 이처럼 문화의 혼종성을 지닌 아크람 칸은 주체성에 대한 방랑을 통해 단순히 문화를 무분별하게 섞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각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 마페졸리는 다양한 방랑의 방식을 통해 다원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정된 인간관계에서는 다원성이 형성될 수 없으며 방랑을 통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존재성이 발현되도록 요구된다고 한다. 이는 개인에 있어서 역동적인 힘의 상징인 것이다. 즉, 노마드는 고정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벗어남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나타나며, 방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데쉬(Desh)」는 다수의 작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 역시 다양한 색채를 지닌 만화경으로 분절되어 있는데, 이 분절된 공간에서 자아의 전체 조각들이 끝없는 향연을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데쉬(Desh)」의 전개는 허구와 현실, 가상의 시간적 흐름이 공존한다. 아버지 죽음의 허구 설정과 현재 자신의 모습, 신화 속의 이야기, 전쟁사건 등을 무대 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과거·현재·미래·꿈속의 시간이 한자리에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허구와 현실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구와 현실, 가상의 설정을 통해 인생의 경험과 방글라데시의 역사가 무대 위에 혼합되어 단일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아크람 칸은 춤과 대사를 매개로 둘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존재와 자신이 태어난 땅 사이의 물음의 여정을 채워나간다”(이지현, 2014). 고정된 인간관계에서는 다원성이 형성될 수 없듯, 아크람 칸은 시·공간의 방랑을 통해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복수적 정체성의 존재성을 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데쉬(Desh)」에서의 나타나는 특성들은 노마드적 공간을 통해 고정된 존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세계와 만나며, 이 접촉을 위한 방식은 방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3. 순간의 순환

현재는 충돌적인 가치들의 융합 안에서 생성되는 정반대의 가치들이 공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Maffesoli, 2007a, p. 179). 척박한 현실의 장면은 무대 뒷막에 영상을 투사하여 표현한다. 도로와 시위현장 등을 보여주며 박진감 넘치는 현실을 묘사하고 동시에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사막으로 비추었다. 이렇게 작품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초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현실과 환상의 대립 구조로 존재하면서도 관객들의 감성 안에서 혼용된다. 모리악(F. Mauriac)은 “허구만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Maffesoli, 2007a, p. 141). 또한, 허구는 한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안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마페졸리가 언급한 허구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중심에서 ‘나’라는 존재가 열려 있듯이 사회 전체 중심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지닌 열린 존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작진들은 작품「데쉬(Desh)」의 연구를 위해 방글라데시의 생활양식, 지역성, 특수성 등을 체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고 하였다. 그들은 여정을 통해 그곳의 정취, 감각, 냄새, 색깔 등을 탐색하고 모험하며, 이야기의 모티브를 찾아내었다고 한다. 현시대의 '혼합주의'는 신비주의에 가치를 두는 동시에 경험적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즉, 개인은 사회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의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Maffesoli, 2007a, pp. 186-187). 이러한 스텝들의 여정은 서구 문화에 물들어 있던 감성에 자극을 주었다. 그들에게 색다른 동양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이념을 체험하고 습득하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감각을 생성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여행을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소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감정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신부족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부족주의 관계에서 갈등적 조화를 다원성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인간은 감각주의, 비극적-지적 상대주의, 현재적 시간관념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원주의를 강화한다. 마페졸리는 “방랑은 구조적 다원주의를 논하는 하나의 작업일 따름이다.”라고 말하였다(Maffesoli, 2007a, p. 141).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인간의 다원성과 다양한 요소들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는 내면의 다원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다원성이 사회적인 것이라 부르는 것의 다양성과 같다. 즉, 예술은 주관적인 변인들을 통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세계를 체계화하고 조직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데쉬(Desh)」에서 나타난 다양한 관계설정과 다양한 요소들은 아크람 칸이 살아온 환경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게 하였고, 그 자신의 복수적 정체성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 존재를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의 노마디즘(Nomadism) 사유를 바탕으로 아크람 칸(Akram Khan)의 작품 「데쉬(Desh)」에 드러난 방랑적 특성을 밝히고자,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중 '방랑'을 통한 접속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무용 작품 「데쉬(Desh)」를 분석하였다.

마페졸리는 '방랑을 통한 접속', '부족주의를 통한 융합', '현재를 통한 순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을 설명한다. 그는 방랑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며 감정 융합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각각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상대주의적 관점에 의한 자유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개인과 타인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존립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이동성이 있고 새로운 변형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그 순간들이 모여 순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순환은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작품 「데쉬(Desh)」에서 '모험적 방랑', '타자를 통한 감정융합', '순간의 순환'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에 따른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크람 칸의 「데쉬(Desh)」 작품에서 나타난 방랑적 특성은, 모험적 방랑을 통해 낯섬을 탐구하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복수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안무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색적이고 다양한 만남은 창조적인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혼용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문화와 사회 문제를 반영하여 방랑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었다. 또한,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은 무용과 영상, 음악, 무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무대에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장르들은 단순히 융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특성을 연결시켜 복합적인 예술을 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데쉬(Desh)」에서는 여행이라는 방랑을 통해 낯선 것들에 관한 탐구를 시도하였고, 이것은 다양한 타자와의 접속을 연결해 주었다. 아크람 칸은 자신의 모습에 투영된 타자

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타자와의 감정융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예술가와의 공동체적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든다. 이러한 모험으로부터 얻는 순간의 경험은 그를 다시 방랑의 길로 안내한다.

그리고 작품 「데쉬(Desh)」의 내용은 가족, 폭력, 전쟁, 인종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아크람 칸은 자신의 불완전한 정체성을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얻는 감정의 융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데쉬(Desh)」는 이러한 작품 전개과정에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관객에게 잘 전달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방랑을 시작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였다. 인종차별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은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방랑으로부터 재생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크람 칸은 「데쉬(Desh)」의 작품 과정을 “이 여행을 지금까지의 예술 여정 속에서 ‘가장 가슴 저미는 순간 중 하나’로 표현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Lyndsey Winship, 2014). 이는 감추고 싶었던 과거, 아픈 상처들의 기억,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순간의 이미지를 무대 위로 재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크람 칸은 애니메이션의 공간과 새로운 무대 위 세트를 통해 시종의 역할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현실, 가상의 상황을 오버랩하였다. 공간의 변화와 함께 캐릭터를 통해 그 순간으로 모험을 떠나고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순간의 기억들을 모아 현재 자신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크람 칸의 작품 「데쉬(Desh)」에서 드러난 노마디즘의 특성은 결국 방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상대주의적 공동체를 이루어 감정을 융합을 시킴으로써 현재적 순간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적 작품은 일상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초월적 세계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험적 방랑을 통해 낯섬을 탐구하고 타인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고 현재의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삶은 새로운 삶을 구성하고 순환을 통해 재창조된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무용은 상대적인 것들의 융합, 공존, 융해 등을 넘어 존재들 간의 관계적인 예술로 거듭나고 있다. 마페졸리가 강조했듯이 예술 작품은 일상의 삶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대무용 작품을 통해 인간의 노마디즘적 삶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크람 칸의 작품 「데쉬(Desh)」와 마페졸리의 노마디즘 사상을 연결하여 작품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마페졸리 노마디즘의 심층적인 논의를 모두 담아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있어 무용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마페졸리의 노마디즘에 대한 하나의 행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해외의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서가 담긴 무용작품에서도 노마디즘의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충환(2001).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유목주의의 이해. **월간 미술세계**. 통권 195호.
- 김경희(2004). 영국 안무가 아크람 칸. **연합뉴스**. 2015년 11월 2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775723>
- 김동윤(2007).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상성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1), 62-83.
- 김말복(2011). 컨템포러리 댄스의 몸. **한국무용예술학회**, 34, 1-27.
- 김보라(2011). 혁신적인 안무가 아크람 칸, 한국 다시 찾는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12일 검색.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1664081>
- 김성기(2001). 문화이론에서 본 유목주의, 허와 실. **월간 미술세계**. 통권 195호.
- 김장운(2014). 80분을 질주하는 솔로리스트, 아크람 칸, 춤꾼으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라!. 네이버 블로그. 2018년 10월 5일 검색. <https://blog.naver.com/tldhsrlawkdd/70190085144>
- 김정락(2014). 한국미술에서 디아스포라와 유목주의. **월간 미술세계**. 통권 351호.
- 김정은(2014). 아크람 칸 “춤은 내게 유일한 언어”. **연합뉴스**. 2015년 3월 15일 검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
- 김 현(2008). **현대미술의 노마디즘적 경향과 이동성의 문제: 서도호와 김수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문학수(2014). “혼자 춤추는 것은 언제나 두렵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11일 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 박성준(2016). 디오니소스와 로코코: 미셸 마페졸리 『디오니소스의 그림자』서평. **한국외국대학교 철학과 문화연구소**, 35, 121-132.
- 배수현(2014). **망명과 노마드적 특성에 따른 마르셀 뒤샹의 전위(dislocation)의 공간: 〈여행 가방 속 상자〉와 초현실주의 전시(1938, 1942)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손은옥(2000). **현대의 사회문화에 따른 무용의 공연예술 변화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윤희(2001). **이미지 문명(Civilization of the image)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지현(2014). 아크람 칸(Desh) 내한 리뷰 & 인터뷰. **춤웹진**. 2017년 3월 18일 검색. <http://blog.naver.com/dancewebzine/220049525613>
- 조운경(2006).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상력**. 이화여대출판사. 서울.
- 최원기(2008). 자연회귀의 사회학(김무경). **한국문화사회학회**, 4, 206-217.
- LG Artcenter(2018). 오하드 나하린, 인터뷰로 만나다!. *Lgartcenter*. 2018년 5월 17일 검색. <http://lgartscenter.blog.me/93615346>
- Lyndsey, W.(2014). 아크람 칸 춤의 화두 ‘정체성에 대하여’. *Time Out London*. 2017년 3월 18일 검색. <http://blog.naver.com/lgartscenter/220025779390>
- Maffesoli, M.(1985). *Ombre de Dionysos : contribution à une sociologie de l'orgie*, Méridien Klincksieck, (trans.Cindy Linse & Mary Kristina Palmquist, 1993, *The Shadow of Dionysus : A Contribution to the Sociology of the Or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ffesoli, M.(1997). *La Contemplation du Monde/ 현대를 생각한다* (박재환, 이상훈 역). 문예출판사. 서울.
- Maffesoli, M.(2007a). *Du Nomadisme:Vagabondages initiatiques/ Du Nomadisme*(최원기, 최향섭 역). 일신사. 서울.
- Maffesoli, M.(2007b). *The Sociology of Nature-Recurrence/ 자연회귀의 사회학*(김무경 역). (주)살림출판사. 경기.
- Maffesoli, M.(2010). *L'instant éternel: Le retour du tragique dans les sociétés postmodernes/ 영원한 순간* (신지은 역). (주)이학사. 서울.
- Maffesoli, M.(2013). *L'ombre de dionysos/ 디오니소스의 그림자* (이상훈 역). (주)출판사 삼인. 서울.

## ABSTRACT

## A Study on Nomadism Characteristics in Akram Khan's 「Desh」<sup>+</sup>

Jaesun Lee\* Transmedia Institute

This study is intended to address the trends of nomadism in contemporary dance(Akram Khan, 「Desh」). As a result, the adventure life of the choreographer and the life through experience form a community by the circulation of emotional converg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a relationship with the other. In addition, all the elements and genres revealed in the works are mixed in a balanced manner, and create a new genre based on circulation. When the value is recognized, the works of art are born. Finally, choreographers value the senses, feelings and time that occur at the moment of passing through wandering experiences, and emphasize this present time.

**Key words** : contemporary dance, nomadism, michel maffesoli, akram khan, desh

논문투고일: 2022.12.07

논문심사일: 2023.01.02

심사완료일: 2023.01.14

<sup>+</sup> This study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Lee Jae-sun's doctoral thesis in 2019.

\* Senior Researcher, Transmedia Institute, egeg61024@naver.com